

# 강진에 국제규격 탁구 전용경기장 들어선다

국비 등 13억 투입 500㎡ 규모  
탁구장 3개 면·편의시설 조성  
이달 말 착공·10월 준공 예정  
생활체육 활성화·대회 유치 기대



강진 탁구장 조감도.

〈강진군 제공〉

강진에 국제 규격 탁구 전용 경기장이 생긴다. 강진군은 강진종합운동장 인근에 2020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억90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투입해 탁구 전용경기장을 건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을 거쳤으며 조만간 공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 착공, 10월 준공 예정이다.

탁구전용경기장은 강진종합운동장 인근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지에 연면적 500㎡(150평)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는 국제규격(14×7m)을 갖춘 탁구

장 3개 면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인근에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2개소, 축구 전용경기장 5면, 테니스장 9면,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까지 생활체육 시설이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 유치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종합운동장을 거점으로 각종 공공체육시설을 집적화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스포츠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김창준 시체육회장 "애초대로 출연금 6억원 내겠다"

간담회서 밝혀... 첫 출연금 2억 납부  
"공정위 규정 개정 오해 소지 있어  
출연금 규정 손질 사무처에 일임"

출연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창준 광주 시체육회장이 10일 "애초대로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출연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광주시체육회에서 기자 간담회

를 열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평위에서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이 금액이 소진되면 또다시 출연하라는 의미를 담아 규정을 개정했는데,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임기 동안 2, 3차 출연금도 각각 2억원씩 성실하게 내겠다"며 "첫 출연금 2억원은 어제(9일) 냈다. 애초에 빨리 출연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사태로 체육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평위가 최근 개정해 논란이 된 사무관

리 규정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광주시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코로나19사태로 광주시가 겨를이 없어 임명이 순탄치 않다"며 "신임 사무처장에게 규정개정 문제를 일임해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체육회 산하 자문기구인 스포츠공평위원회는 최근 '민선 초대 회장부터는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해야 하며,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사무 규정을 개정했다. 애초 사

무규정에 의하면 김창준 회장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했다. 김 회장은 출연금 사용명목과 관련, "지난해 출연금 규정이 제정될 당시 애경사 경조비, 소외계층·스포츠 지원, 선수 장학금 등으로 사용처가 명시돼 있어 그에 따르려 한 것이다"며 "이 역시 사무처에서 명목을 정해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체육인이 시체육회의 규정개정 등을 문제 삼아 성명을 내고 반발한 것에 대해 "전문·학교·생활체육 등 위원회를 매월 정례화한 원탁회의를 열고 광주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체육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테니스 황제' 페더러 무릎 수술 받고 시즌 마감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9·스위스)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시즌을 그대로 마치게 됐다. 페더러는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몇 주 전에 재활 운동을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며 "오른쪽 무릎에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2017년을 준비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페더러는 2016년에도 무릎 부상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US오픈에 불참하고 2017시즌을 준비한 바 있다. 이후 2017년에 그는 호주오픈과 윌블던을 제패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페더러는 "팬들과 투어 활동이 그리지만 2021년 시작과 함께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다음 시즌 코트 복귀를 예고했다. 올해 1월 호주오픈 4강까지 오른 페더러는 2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었으며 3월부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탓에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없었다. 2018년 호주오픈 이후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는 페더러는 현재 세계 랭킹 4위에 올라 있다. 이달 초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최근 1년간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 페더러는 1억 630만달러(약 1316억원)를 기록,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2, 3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페더러의 메이저 우승 횟수는 20회로 그 뒤를 라파엘 나달(34·스페인)이 19회로 쫓고 있다.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는 US오픈과 프랑스오픈 두 차례다. 윌블던은 취소됐으며 8월 US오픈과 9월 프랑스오픈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PGA 재개... "골프야 반갑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PGA 투어가 재개된 가운데 9일 미국 텍사스 콜로니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찰스 슈와브 쉐링지 연습라운딩에서 조던 스피스가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펠릭스 vs 밀러-워보 육상 150m '비대면 대결'

세계육상연맹 7월 10일 이색 이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다 메달리스트(17개)인 엘리슨 펠릭스(35·미국)와 '제왕' 쇼네 밀러-워보(26·바하마)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거리를 달리는 '랜선 육상경기'를 펼친다. 미국 남자 육상 단거리의 신신 노아 라일스와 안드레이 더그래스(캐나다), 남자 110m 허들 챔피언 오마르 매클라우드(자메이카)는 100야드(약 91.44m)를 뛰는 '비대면 경기'를 한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선수들의 이동이 어려워지자, 세계 육상계는 다양한 방법의 '비대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10일 "스위스 취리히 등 3개 대륙 7개 경기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벤트가 열린다"며 "7월 10일에 열리는 이번 이벤트에 30여명의 육상 스타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월드클래스 취리히 인스퍼레이션 게임즈' 개최 소식을 알렸다. 애초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를 준비하던 스위스 육상연맹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회가 취소되자 '비대면 경기'를 추진했다. 8개 종목이 열릴 예정인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여자 150m다. 펠릭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월넬, 밀러-워보는 플로리다주 미라마, 스위스 육상 스타 무정자 캄부지는 스위스 취리히 트랙을 달린다. 라일스와 더그래스, 매클라우드도 자신이 훈련하는 곳에서 100야드를 뛴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을 통해 90분 동안 생중계할 예정이다. 세계육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육상 대회가 중단되자, 스타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마당 혹은 훈련장에서 독특한 규정으로 경쟁하는 '마당 챔피언십'을 기획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10종 경기 선수들이 랜선 대결을 펼쳤다. 비대면 방식의 육상 경기가 트랙으로 더 확대됐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기록도 공인할 수 없는 이벤트성 대회지만 육상 팬들의 감동을 해소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개최 어렵다" 경북도지사 연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올해 구미 등에서 열 예정인 전국체전 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전국체전에 선수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방역 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논의해 올해 대회를 연기해 내년에 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대회를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체전을 1년씩 순연해달라고 뜻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방역 당국, 차기 대회 광역단체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제101회 전국체전은 올해 10월 8~14일, 제40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21~26일 구미를 중심으로 도내 12개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21년 체전을 여는 울산 등 순서가 정해진 광역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에 1년씩 연기해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총예산 1495억원 가운데 시설비로 1290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취소해서는 안 되고 내년으로 연기해 정상 개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는 2021년 울산, 2022년 전남, 2023년 경남, 2024년 부산이다. 전국체전은 중·일전쟁과 6·25전쟁 피해에만 취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결백
3관	결백
4관	결백
5관	침입자
9관	침입자
7관 씨네커를	에어노츠,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 레옹 디 오리지널
8관 씨네커를	위대한 쇼맨, 도미노, 언더워터, 그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철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